

메리츠세이프밸런스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혼합채권형 펀드]

[자산운용보고서]

(운용기간: 2019년 01월 06일 - 2019년 04월 05일)

- 이 상품은 [혼합채권형 펀드]로서,
[추가 입금이 가능한 추가형 펀드입니다.]
-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메리츠자산운용

03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계동, 계동빌딩)
(전화 :02)6320-3000 , www.meritzam.com)

목 차

1. 펀드의 개요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3. 자산현황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5. 비용현황
6. 투자자산매매내역
7. 공지사항

<참고 - 펀드용어정리>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	--------------------	------	-----------

펀드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메리츠세이프밸런스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19578	
펀드의 종류	투자신탁, 증권펀드(혼합채권형), 추가형, 개방형	최초설정일	2010.04.06
운용기간	2019.01.06 - 2019.04.05	존속기간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자산운용회사	메리츠자산운용	판매회사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증권
펀드재산보관회사	농협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
상품의 특징			
안정성 및 유동성이 높은 동안채, 은행채, 특수채 및 유동성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하며, 신탁재산의 나머지를 우량한 공모주 위주로 투자함으로써 추가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혼합채권형펀드입니다			

주) 펀드의 자세한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http://dis.kofia.or.kr>],
 운용사 홈페이지 [www.meritzam.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현황

(단위: 백만원, %)

※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명칭	항목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메리츠세이프밸런스증권투자신탁2호 [채권혼합]	자산총액	10,104	10,322	2.16
	부채총액	38	37	-3.90
	순자산총액	10,065	10,285	2.19
	기준가격	956.38	1,020.66	6.72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분배금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좌)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 지급금액	분배후 수탁고	기준가격(원)		비고
			분배금 지급전	분배금 지급후	
2019.04.08	0	10,077	1,020.66	1,020.66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 기간수익률

(단위: %)

펀드명칭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9개월	최근12개월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19.01.06 ~ 19.04.05	18.10.06 ~ 19.04.05	18.07.06 ~ 19.04.05	18.04.06 ~ 19.04.05	17.04.06 ~ 19.04.05	16.04.06 ~ 19.04.05	14.04.06 ~ 19.04.05
메리츠세이프밸런스증권 투자신탁2호[채권혼합] (비교지수대비 성과)	6.72 (5.29)	3.09 (2.34)	2.87 (1.64)	0.17 (-0.77)	6.15 (2.38)	2.07 (-4.30)	12.86 (1.82)
비 교 지 수	1.43	0.75	1.23	0.94	3.77	6.37	11.04

※ 비교지수 : (0.1 * [KOSPI]) + (0.9 * [KIS종합 3M-01Y])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추적오차

(단위: %)

※ 해당사항 없음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	장내	장외		실물	기타			
전기	-380	49	-	-	-	-	-	-	-	2	-39	-369
당기	669	39	-	-	-	-	-	-	-	1	-38	671

▶ 운용경과,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메리츠세이프밸런스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이하'펀드')는 2019년 1월 6일 ~ 2019년 4월 5일 기간동안의 성과는 6.72% 입니다. 같은 기간 벤치마크는 1.43%로, 펀드는 시장보다 5.29% 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였습니다.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6.11%로, 벤치마크 수익률 1.33% 대비 4.78% 포인트 상회 하였고, 2010년 설정 이후 수익률은 67.01%로 벤치마크 수익률 27.33% 대비 39.68% 포인트 상회 하는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주식부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용기간 중 '셀리드', '에코프로비엠' 및 '천보' 등의 IPO에 신규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번 분기 중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향후 추가 상승여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의 경우 신규 IPO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종목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를 단행하였습니다. 주요 매도 종목으로는 '데이타솔루션', '필옵틱스', '로스웰', '싸이토젠', '씨티케이코스메틱스', '에프엔에스테크', '경보제약', '모트렉스', '유앤아이' 및 '신송홀딩스' 등이 있습니다. 이번 분기 중에 주요 보유기업별로 성과에 대한 기여를 살펴보면 기간 중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일부 제약 및 바이오 업종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디바이스이엔지'의 경우 이번 분기에 100% 주가가 상승하였고 '하나머티리얼즈', '에이치엘사이언스', '지티지웰니스'의 경우에는 80%가 넘는 주가 상승세를 시현하였고 '티씨케이', '오션브릿지', '엘앤씨바이오', '슈피겐코리아', '우리손에프앤지' 그리고 '메카로'가 50% 넘는 주가 상승세를 시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 넘는 주가 상승세를 보인 종목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무기한 연기 및 보유 국채에 대한 매각을 조기에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비둘기적인 입장으로서의 선회가 전세계적인 주가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하게된 주 원인이었고 특히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닥 및 중소형주의 높은 주가 상승세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분기보고서에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와 관련하여, 핵심부품인 자동차용 2차전지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의 보조금 삭감 및 폐지가 국내 배터리 3사(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에 큰 시장을 열어줄 수 있을 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밸런스 펀드는 배터리 3사에 직접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IPO를 통해 에코프로비엠, 천보 등 2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회사들과 소재 회사들은 업황과 경쟁환경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중국의 전기차는 2014년 8.5만대(4.1GWh)에서 2018년 121.8만대(60GWh)만대로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중국 전지협회는 2020년 200만대(92GWh)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빠른 중국 전기차시장의 성장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주된 성장 요인으로 기여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으로 총 580억불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전체 전기차 판매금액의 약 42%를 차지하는 큰 규모입니다. 중국 CITIC 증권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 전기차 산업의 전체 Gross Profit은 597억위안인데 2017년 한해 동안 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663억위안으로 마찬가지로 중국 전기차 산업에서 정부의 보조금이 기여하는 정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보조금은 2017년부터 연도별 계단식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중국 전지협회는 2019년 새로운 보조금 정책으로 4~6월에는 30% 감소를, 7월부터는 50%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 한차례 더 인하한 뒤 2021년에는 완전히 폐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가 전기차 수요에 미칠 영향과 중국 업체들의 대응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향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은 현재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니켈코발트망간(NCM)타입의 2차전지 기준 약 22만원/kWh입니다. 언론 및 탐방을 통해 알수 있는 중국 이외의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구입하는 전기차용 2차전지 가격은 약 11만원/kWh를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격 차이가 중국정부의 보조금 때문입니다. 현재 LG화학, 삼성SDI 및 SK이노베이션으로 대표되는 국내의 자동차용 2차전지 3사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전혀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소멸된다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세계적인 품질은 물론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도 충분히 시장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의 2차전지 산업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현재 이미 공급과잉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배터리 생산능력은 180GWh로 전년대비 약 100%늘어났으며 2018년 생산능력은 추가로 30%늘어난 240GWh입니다. 2018년 수요가 60GWh였음을 감안하면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기는 하지만 생산능력 증가는 그보다 더 빠른 상황입니다. 중국 전지협회에서는 향후 3~5년 내 중국 배터리 업체의 90%가 인수/합병, 파산 등으로 구조조정을 거쳐 20개 내외의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은 CATL이 시장점유율 42%로 1위, BYD가 점유율 21%로 2위 그리고 Guoxuan 점유율 6%로 3위이며 Lishen이 점유율 4%로 4위로 이 네 회사가 시장의 약 75%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직은 대한민국의 자동차용 2차전지 업체들의 중국 진출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에서 별도의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21년 정부 보조금이 완전 폐지된 이후에는 중국 시장에서 시장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예상되어 관련기업에 대한 투자와 리서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펀드는 지속적으로 유망한 기업들의 IPO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지금은 비록 작지만 향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장기 투자하면서 성과를 올리는 전략을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투자전략을 유지할 것입니다. 일부 종목들의 경우 단기간에 주가가 큰 폭의 상승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주가상승에 있어 과열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매도를 하는 등 적절히 리스크관리를 진행하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의 코스닥 지수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특히 IT업종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되며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부문의 운용 경과와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기간 중 채권시장 동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리는 기 후반까지 큰 변동 없이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지속하다가 기간 말에 하락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금리가 기준금리에 근접함에 따른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 위험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약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 기대, 미국 정부의 섣다운 우려 해소, 노딜 브렉시트 우려 완화 등은 금리 상승요인으로, 연준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비둘기적 변화, 미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은 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 3년물, 10년물, 통안채 2년물과 1년물은 각각 전기 말 대비 6.0bp, 7.2bp, 6.0bp, 2.3bp 하락한 1.735%, 1.895%, 1.74%, 1.749%로 마감하였습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통안채 2년물과 1년물의 금리 스프레드가 3.7bp 축소되는 등 대부분 만기에서 축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AA- 회사채 2년물의 경우 10.9bp, AAA 은행채 2년물의 경우 5.6bp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용 경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듀레이션은 기 초반 1.0 년으로 출발하여 기중 조정이 없었으나, 자연 감소로 인해 0.79년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기 구조도 장단기 금리의 스프레드 축소가 펀드 성과에 유리한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크레딧 시장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말에 보유 카드채를 매각하여 펀드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채권부문 운용수익률은 듀레이션, 만기구조 등의 전략에서의 성과는 좋았으나, 펀드의 안전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낮춰 놓았던 크레딧 비중의 영향으로 BM 수익률 수준의 성과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시장 전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금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가파르게 하락하였으나,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는 하단이 약간 낮아지긴 하였으나, 박스권 등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 타결 기대,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 반등, 국제 유가와 글로벌 주가의 상승세, 연준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차단 등은 금리상승 요인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성장 및 물가 전망 하향 조정과 긴축기조 완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경기 둔화 지속에 대한 우려 등은 하락 요인으로 팽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도 당분간 상기 등락 요인들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어떤 한 요인이 뚜렷한 우세를 점하기 전까지 금리는 보험권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예상을 큰 폭 상회한 1분기 GDP 성장률, 고용 호조 지속, 예상을 상회하는 1분기 기업 실적, 소비와 주택 경기 지표 반등 등 상대적으로 경기 상황과 전망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ISM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의 하강 추세, 소비와 전반적인 주택 경기 둔화 추세,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 등 향후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점도 꽤 있습니다. 유럽은 경기둔화 추세의 지속으로 글로벌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역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의 둔화, 과도한 부채 부담, 경기 부양책의 한계 등으로 추세적 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기는 선행 및 동행지수의 장기 하락 추세의 지속, 1분기 GDP 역성장 쇼크, 수출 부진 지속 등 부정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 추경 집행 등 2분기 이후 성장을 회복시킬 요인이 없지 않으나, 의미 있는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의 강력한 회복 모멘텀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불확실한 국내외 경기 전망은 채권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속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주요국 단기국채 금리는 대부분 기준금리 수준 이하에서 거래되면서 시장의 국내외 경기에 대한 우려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은 최근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성장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동시에 인플레이 부진이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한동안 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은 총재도 성장과 물가의 회복 가능성과 금융 안정을 들어 단기 내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로 보면,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신뢰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경우 지속적 금리인상이 중단된 이후 미국채 2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한 경우, 시간의 문제지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리 역전 이후 미국 자체 또는 해외의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전례가 다수 목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미국에 비해 경제 펀더멘털이 약한 한국도 뒤따라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앞으로 발표될 주요국의 경제 지표와 금융시장의 변동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 타결 여부의 영향은 타결되지 않았을 때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초 무역협상 타결 기대가 고조된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면서 관세 카드로 다시 압박하고 나섬에 따라 타결 여부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의 심화로 또 한 차례 채권시장의 강세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5월 중 무역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채권시장이 추세적인 약세로 반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뉴스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격언대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당분간 채권시장은 4월에 이어 박스권 등락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기조 등은 금리 하락요인, 연준 의장과 한은 총재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 배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시장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 무역협상 타결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위험자산 가격 상승세 등은 금리 상승요인으로 각각 작용하는 가운데, 주요국 경제 지표와 위험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금리는 글로벌 경기 지표 둔화 추세,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의 안전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안채와 은행채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듀레이션은 장기적 관점에서 금리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금리가 반등할 경우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팀의 투자철학은 단기간의 수익률 상황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불필요한 매매를 지양하고 기업과 동업을 하는 마음으로 장기투자를 실천해오고 있으며, 펀드의 낮은 매매회전율은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메리츠자산운용의 철학은 장기투자, 펀더멘탈 중시, 그리고 벤치마크를 추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시장대비 수익률의 부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 전망 및 확신에 기초한 저희의 투자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20년 이상의 팀워크를 지닌 저희 운용팀을 신뢰해주시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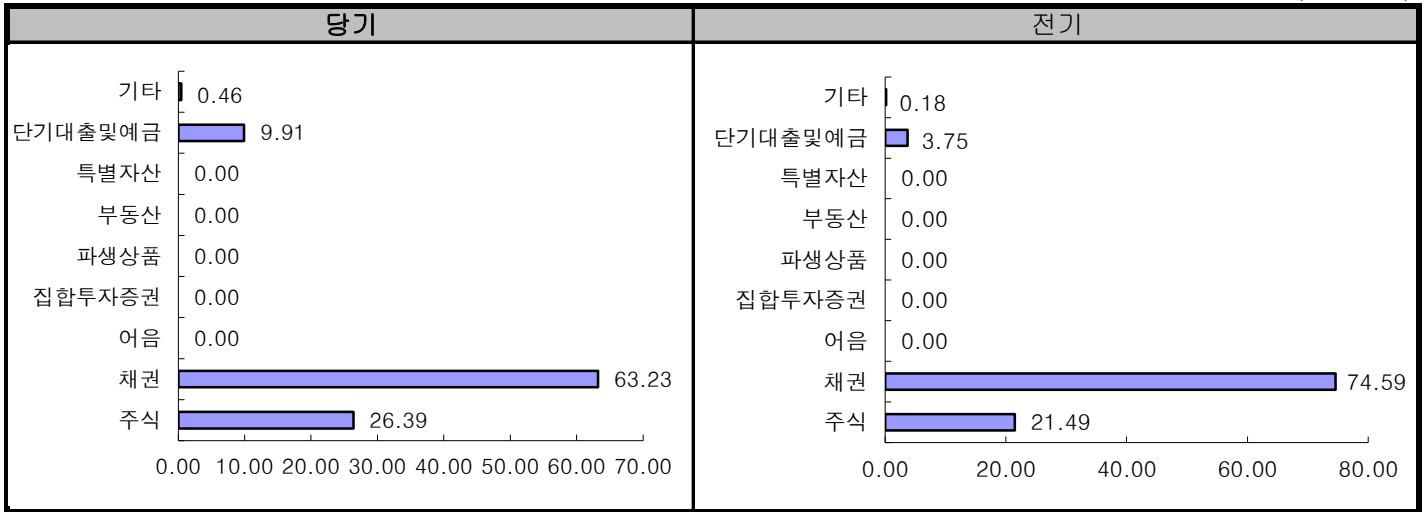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메리츠자산운용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2,724 (26.39)	6,527 (63.23)	-	-	-	-	-	-	-	1,023 (9.91)	48 (0.46)	10,322 (100.00)
합계	2,724 (26.39)	6,527 (63.23)	-	-	-	-	-	-	-	1,023 (9.91)	48 (0.46)	10,322 (100.00)

* () : 구성 비중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해당사항 없음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원)

투자설명서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2019.04.05) 현재 환헤지 비율	(2019.01.06 ~ 2019.04.05) 환헤지 비용	(2019.01.06 ~ 2019.04.05) 환헤지로 인한 손익
-	-	-	-

주)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해당사항 없음

▶ 주요자산보유현황

※ 펀드자산 총액에서 상위 10종목, 자산총액의(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평가액) 5% 초과 보유종목 및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의 보유내역을 보여줍니다.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식 - Long(매수)**

(단위: 주, 백만원, %)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액	비중	비고
에이치엘사이언스	5,696	413	4.00	-
코미코	5,191	150	1.44	-
슈피겐코리아	1,624	135	1.31	-
유틸렉스	945	116	1.12	-
야스	4,969	113	1.09	-
씨엠에스에듀케이션	13,144	97	0.94	-

▶ **주식 - Short(매도)**

※해당사항 없음

▶ **채권**

(단위: 백만원, %)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금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비고
기업은행(신)1806011.5A-27	2,500	2,506	2018.06.27	2019.12.27	-	AAA	24.27	24.28
산금17신010200-1120-1	2,000	2,012	2017.11.20	2019.11.20	-	AAA	19.48	19.49
통안02050-2010-02	2,000	2,009	2018.10.05	2020.10.05	-	RF	19.46	19.46

주1)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 비고란에 보유 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 **어음**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 **장내파생상품**

※해당사항 없음

▶ **장외파생상품**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임대)**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 - 자금대여/차입**

※해당사항 없음

▶ **특별자산**

※해당사항 없음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비고
예금	농협은행		1,023	1.38		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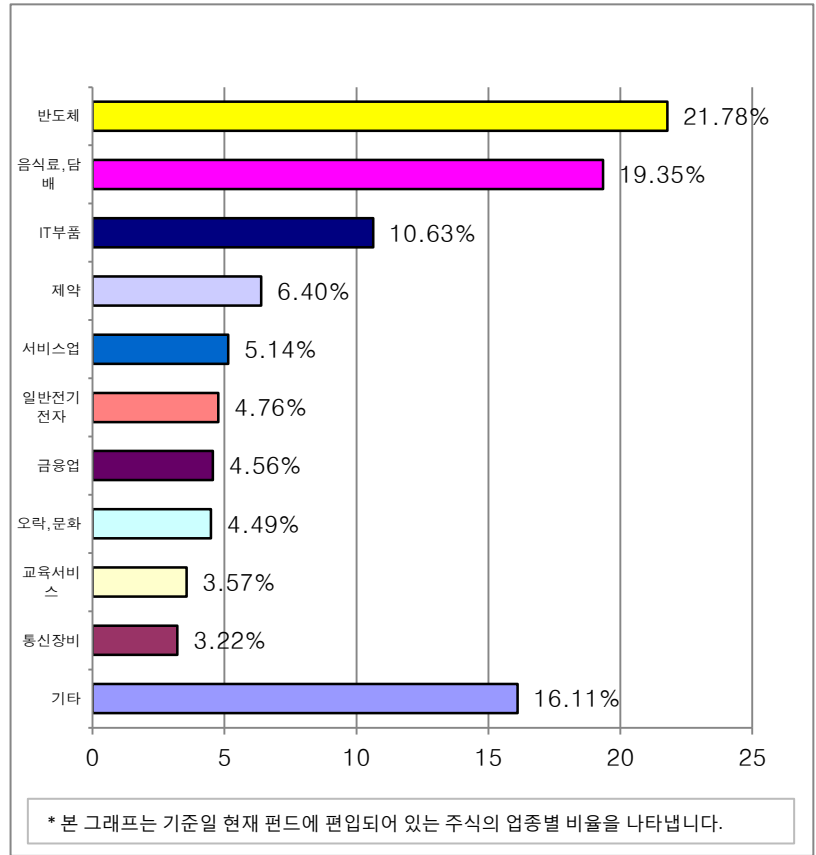
▶ **기타자산**

※해당사항 없음

▶ 업종별(국내주식) 투자비중 - Long(매수)

(단위: 백만원, %)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반도체	593	21.78
2	음식료, 담배	527	19.35
3	IT부품	290	10.63
4	제약	174	6.40
5	서비스업	140	5.14
6	일반전기전자	130	4.76
7	금융업	124	4.56
8	오락, 문화	122	4.49
9	교육서비스	97	3.57
10	통신장비	88	3.22
11	기타	439	16.11
합 계		2,724	100.00



주) 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주) 업종기준은 코스콤 기준

▶ 업종별(국내주식) 투자비중 - Short(매도)

※ 해당사항 없음

▶ 업종별(해외주식) 투자비중

※ 해당사항 없음

▶ 국가별 투자비중

발행(상장)국가별 투자비중

* 일부 해외종목의 경우 거래소 상장국가와 실제 발행국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억원)

성명	운용개시일	직위	운용중인 다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 규모		주요 경력 및 운용내역	협회등록번호
			펀드 개수	운용 규모	개수	운용 규모		
김홍석	2015.02.25	책임운용전문인력	27	14,103	2	124	-메리츠자산운용 : 현재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 2004~2013 -스커드인베스트먼트/도이치투신운용 : 2000~2004 -딜로이트투쉬토마츠(안진회계법인) : 1999~2000	2109000472

주)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자의사 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해당사항 없음

▶ 해외 투자운용전문인력

※해당사항 없음

▶ 해외 위탁운용

※해당사항 없음

5. 비용현황

▶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펀드 명칭	구 분	전 기		당 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메리츠세이프밸런스증권 투자신탁2호[채권혼합]	자산운용회사	11.73	0.11	11.50	0.11	
	판매회사	26.07	0.25	25.55	0.25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78	0.01	0.77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52	0.01	0.51	0.01	
	보수 합계	39.10	0.38	38.32	0.37	
	기타비용**	0.18	0.00	0.17	0.00	
	매매· 중개수수 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91	0.01	0.99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23	0.00	0.07	0.00
		합계	1.14	0.01	1.06	0.01
		증권거래세	0.50	0.01	0.58	0.01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연환산, %)

펀드 명칭	구분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비율(B)	합계(A+B)
메리츠세이프밸런스증권투자신탁2호 [채권혼합]	전기	1.51	0.04	1.55
	당기	1.51	0.04	1.55

- 주1)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주3)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

(단위: 주, 백만원, %)

메리츠세이프밸런스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매 수		매 도		매매회전율 ^(주1)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해당기간	연환산
-	-	35,520	194	7.70	31.24

주1) 해당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최근3분기 매매회전을 추이**

(단위: %)

2018.04.06 ~ 2018.07.05	2018.07.06 ~ 2018.10.05	2018.10.06 ~ 2019.01.05
9.36	3.06	7.23

주) 매매회전율이 높을 경우 매매거래수수료(0.1%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 비용이 증가합니다.

<공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님의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메리츠세이프밸런스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의 자산운용회사인 [메리츠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농협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에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 banking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보고서 확인 : 메리츠자산운용 www.meritzam.com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